

POSCO

UNGC 가입일: 2012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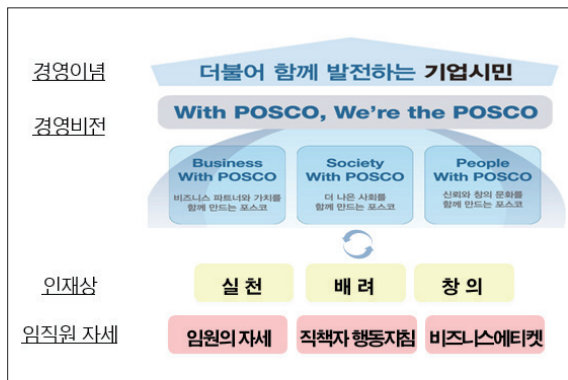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차별없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 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포스코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With POSCO, We're the POSCO를 경영비전을 선포하고 고객과 공급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Business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Society With POSCO, 신뢰와 창의를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People With POSCO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업시민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 확대에 따라 기업이 기존의 경제주체 역할에 더하여 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SDDGs)와 포스코의 노력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펼치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 SDGs)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시민 포스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은 정부·전문NGO·언론기관 등과 협동하는 'Collaborate', 포스코그룹의 회사별 핵심역량과 연계하는 'Create',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Differentiate'의 3가지 전략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포스코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양질의 교육기회', '경제적 자립지원'의 3가지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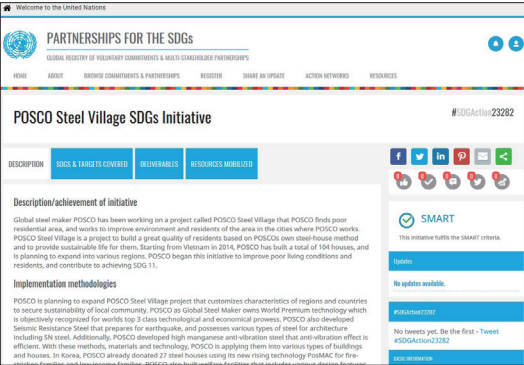
『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시민활동 』

포스코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가치로 생각합니다. 제철소가 있는 포항, 광양은 물론 포스코가 진출한 53개 국가의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지역민들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원활동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포스코 스틸 빌리지-

포스코 스틸빌리지 사업은 포스코그룹 비즈니스가 진출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철강, 건축공법 기술 등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 주택, 학교 등의 하드웨어를 건축하고 사회적기업 등 경제적 자립기반의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포항과 광양, 인천, 서울 등에 스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한편,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스틸 하우스를 건축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104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스틸빌리지를 조성하였고, 미얀마에는 스틸브릿지를, 태국에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스틸 돔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UN SDGs 홈페이지 내 Partnerships for SDGs에 POSCO Steel Village SDGs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2017년 11월 우수사례로 등재되었으며, UN지속가능개발부로부터 SMART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

① 재능 봉사단

포스코는 임직원의 연간 평균봉사 시간이 (2017년 기준) 32시간에 달합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임직원 개인이 가진 업무 특성, 기술 및 특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재능 봉사를 전개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포스코그룹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 활동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17년 1월에는 5기 41명이 베트남 포스코 스틸 빌리지 현장에서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 단원들은 장애인 학교, 고아원 등 현지 복지 시설 봉사를 시작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지민들의 보금자리를 건축하였습니다. 건축 봉사활동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봉사자 외에도 베트남 현지 법인과 현지 채용 직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 8월에는 6기 봉사단 51명이 태국 라용 지역에서 건축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자매마을

포스코는 1988년 광양 하강 마을을 시작으로 '1부서 1자매 마을'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총 203개 자매 마을에서는 포스코 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사회와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더 살기 좋은 자매 마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모든 아동·청소년이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욘드 (Beyond)	봉사자수 100명('17년)	매년 100명의 대학생을 선발, 국내외에서 사랑의 집 짓기,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Do Dream)	수혜자수 30명 취업연계교육 3명('17년)	포스코는 2017년 새롭게 시작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자립을 준비하는 각 단계 마다 회사가 보유한 취업 지원 제도와 우수한 임직원 멘토를 연계하여,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친무지개 프로젝트	수혜자수 53명('17년)	친친무지개 프로젝트는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 입학에 위한 교육 등 맞춤형 진로지원 교육과 사례관리자의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연간 프로그램은 진로지원, 기관방문, 우수사례발표, 장학동창회, 정기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표] 포스코의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경제적 자립 지원 활동

포스코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개인의 삶의 안정과 이를 통한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취약계층들에게 취업의 접근성과 경제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한 기업시민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 오아시아	실버 홈 케어
<p>카페오아시아(Cafe OAsia)는 포스코와 세스넷이 함께 설립한 고용 노동부 인증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소규모 카페가 조합을 이뤄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 이주 여성을 바리스타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구매와 마케팅을 통해 절감된 비용 등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은 다문화 캠페인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활용됩니다.</p>	<p>지난 2015년부터 포항에서 진행된 '老老 홈 케어' 명맥을 잇는 실버 홈 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케어사는 매월 네 번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정리 정돈과 식사 보조 등 생활 지원과 외출 동행 등 정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는 어르신 180분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0명의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p>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PT.KPSE)	포스코 휴먼스
<p>포스코는 진출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포스코1% 나눔재단 사업으로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 PT. KPSE Services Indonesia(PT Krakatau POSCO Social Enterprise Services Indonesia)를 공동으로 기획 및 설립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가 위치한 짚레곤시 3개 마을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취업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원하고 있습니다.</p>	<p>포스코는 생산적 활동과 질 높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포스코휴먼스는 장애나 장기실업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우선 고용하여 포스코 사내 사무, IT, 클리닝, 차량 지원 및 스틸하우스 건축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p>

[표] 포스코의 다양한 경제적 자립 지원 내용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기업시민활동』

포스코는 2010년 2월 대통령 주재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조강 1톤당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7년~2009년의 평균(2.20 t-CO2/t-S) 대비 9% 감축한 2.00 t-CO2/t-S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효율 향상 로드맵을 구축하여 1기(1999년~2008년)에는 대형 에너지회수설비 투자 및 에너지절약 조업기술을 축적하였고, 2기(2009년~2015년)에는 중소형 에너지효율화 투자와 Smart Industry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3기(2016년~2020년)에는 포스코 고유의 에너지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 부생가스 활용 기술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BFG, COG, LDG, FOG)의 대부분을 공정 에너지원으로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고로 노정압발전(TRT: 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 등 에너지 회수설비, 부생가스 발전설비 및 LNG 발전설비를 통해 2017년 사용전력 중 72%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자가발전 비율(68%)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로 수재슬래그 재활용

고로 수재슬래그는 제선 공정에서 발생한 용융 상태의 고로슬래그에 물을 분사하고 급냉시켜 만든 것으로,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지므로 이를 분말화하여 시멘트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래그를 시멘트 클링커 대체재로 활용하면 석회석과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시멘트 소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이때 발생하는 CO2를 줄일 수 있어, 시멘트사들은 일반 시멘트를 제조할 때 중량의 5% 범위에서 슬래그를 혼합합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포스멘트는 기존의 슬래그 시멘트보다 슬래그 함량을 더 높이고, 압축 강도 등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시멘트로, CO2 발생을 기존 시멘트 대비 약 60%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7년 한 해 1,095만 톤의 수재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여 860만 톤에 달하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 개발

발전기, 송배전 변압기, 모터 등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강판은 이들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되어 있어 고효율일수록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일반 전기강판에 비해 저철손과 고자속 밀도 특성으로 최종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2017년 공급한 에너지 고효율 전기강판은 45만 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0년 판매량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 연안의 해양 수질 및 저질토의 오염수준과 해양 생물 개체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조성된 클린오션봉사단을 통해 산업 활동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청정 해역인 울릉도, 독도에서 급증한 불가사리와 성게의 피해로부터 해조류와 어류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어촌계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연합하여 수중 및 주변 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블로그를 통해 생물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트리톤) 조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트리톤(Triton)' 제품은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재료인 철강슬래그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2를 고정하는 특성도 지닙니다.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2007년 해양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바다숲 및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 과학 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